



김대우 모세 신부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참으로 고마운 요당리성지 후원회 교우님, 그리고 순례자 여러분, 주님의 은총 안에서 평안이 지내셨는지요?

요즘 우리 성지 정원을 산책 하노라면 단풍나무들이 아름답게 물들어 가을의 깊은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성지에는 아름다운 기도길이 있지요. 주차장에서 성지로 들어서면 성모상과 야외 제대, 성인묘역 야외 십자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왼편으로는 ‘묵주기도의 길’, 오른편으로는 ‘십자가의 길’이 고풍스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풍나무들이 서로 팔을 올려 하트 표시를 만들어 나무들도 순례자 여러분에게 환영인사를 건넵니다. 이거 아시나요? 그 길을 따라 묵주기도를 바치면 요당리

성지 순례의 은총을 맛 본 것입니다.

지난 10월 피정때에 묵주기도의 은총과 역사에 대해 강의를 했습니다. 많은 교우분들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 유익했다는 후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식지에 우리가 늘 바치는 기도, **성모신심을 함양하는 대표적인 기도**, 더욱이 복음의 요약이며 **그리스도 중심적인 묵주기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여러분이 요당리성지에 오시어 묵주기도를 바칠 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묵주기도는 하늘에서 알려주신 기도이고, 동시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랜 역사 안에서 해왔던 기도를 하늘에서 함께하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858년 프랑스 남부 루르드 마사비엘 동굴에서 동정녀 마리아님이 오른팔에 묵주를 늘어뜨리고 양손을 가슴에 모은 모습으로 벨라렛다 소녀에게 발현하셨습니다. 성모님은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라는 메시지를 주시며 벨라렛다에게 직접 묵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또한 1917년 파티마에서 발현한 성모님은 자신을 “로사리오의 여왕”이라 말씀하시며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죄인들의 회개, 특히 공산주의자들의 회개와 세계평화를 위해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때 성모님은 우리가 묵주기도 한단을 마치며 하는 “구원을 비는 기도”도 알려 주셨습니다.

묵주기도의 유래를 보면 멀리 중세 도미니코 수도회까지 거슬러 갑니다. 오래 전, 언젠인지 모르지만 언제부터인가 가톨릭 공동체 안에서 신자들은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10개, 20개, 혹은 150개로 묶어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초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시편 150개를 읊으며 기도했기에, 아마도 시편을 다 외울 수 없으면 자연스레 주님의 기도나 성모송 150개를 반복적으로 암송했을 것입니다.

중세에 이르러 독일의 카르투시안 수도자인 프로이센의 도미니코(1384-1460)는 150개 조항의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며 이어서 묵상 사이에 성모송을 외웠습니다. 이 수사님은 도미니코 수도회를 창설한 분

과 다른 사람입니다. 창설자 도미니코 성인(1170~1221)은 물론 성모신심이 깊었지만, 오히려 도미니코 수도회 알라누스 데 루페(1428~1478) 수사가 <묵주기도 형제회>를 결성하여 묵주기도를 전파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는 카르투시안 도미니코 수사가 만든 150개 조항을 15개로 축소시킵니다. 우리가 바치는 환희, 고통, 영광의 신비의 큰 틀은 이 즈음에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15개 신비는 복음의 중요 대목을 뽑아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요약합니다. 이때 묵주기도는 유럽 전역으로 퍼지며 대중화됩니다. 따라서 묵주기도는 반복하는 특성을 지니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는 교회에 오랜 전통을 가진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묵주기도는 십자가에 입을 맞추며 시작하여 59개의 구슬을 거쳐 십자가에서 끝나는 기도이지요. 결국 모든 기도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예수님 안에서 끝이 납니다.

21세기에 이르러, 묵주기도의 본질적 의미와 은총, 방법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교서 “동정마리아의 묵주기도”(2002)에서 더욱 강조 보완됩니다. 이 교서는 묵주기도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이며, 복음의 요약이라고 극찬을 합니다. 교황님의 이러한 뜻에 따라 2002년부터 ‘빛의 신비’가 추가되어 예수님의 공생황을 묵주기도로 묵상하며 구원역사가 더욱 조명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묵주기도의 가치를 ‘다시 찾아야 할 보화’로 규정하며, 지난 2025년 10월 19일에 시성된 성 바르톨로 롱고의 기도문을 교서 마지막에 소개합니다.

“복되신 성모님의 묵주는 저희를 하느님께 묶어 주는 아름다운 사슬이며, 저희를 천사들과 결합시켜 주는 사랑의 끈입니다. 묵주기도는 지옥의 공격을 물리치는 구원의 보루이며 모든 난파선이 찾는 안전한 항구입니다.”(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 43항)

묵주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 곁에 머물게 해주는 기도입니다. 묵주기도는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된 내 영혼에 침입하는 악한 영 일곱을 물리치게 해주는 구원의 보루입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상처 입고, 자신이 하는 일에 한계를 느끼며 ‘나는 왜 안되는 건가’라고 자신감을 잃어갈 때, 묵주기도를 하십시오. 난파선이 찾는 안전한 항구로 성모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질병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괴로움을 겪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의 폭풍이 밀려오는 세상이란 바다위에서 바다의 별이신 성모님께서 예수님 품으로 데려다 주실 것입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 갑니다. 책상서랍, 먼지 쌓인 함에서 묵주를 꺼내어 여러분의 일상을 성모님과 함께 묵주의 빛깔로 물들이길 바랍니다.

요당리 성지 대림피정에 초대합니다.

- 🎵 **제목** : 성탄을 기다리는 성경의 인물들
- 🎵 **언제** : 12월 6일(첫 토요일) 10:00~16:00
- 🎵 **일정** : 10:00 ~ 11:30 주제강의
11:45 ~ 12:30 클래식 공연
12:30 ~ 14:30 점심식사, 고해성사(미사 40분전)
14:30 ~ 15:00 로사리오기도와 파견미사
- 🎵 **참가비** : 3만원.
- 🎵 **신청 문의** : 성지 사무실 031-353-9725
성지에 직접 순례시 사무실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후원 회원님들과 함께하는 기도(10월)

요당리 성지 후원 회원님들께서는 기도가 꼭 필요한 달에 기도 지향을 사무실에 전화로 알려주시면
회보에 기재해 드리고 매주 토요일 미사 지향을 통해 기억해 드립니다.

 이기열(이나시오), 차병문(루까), 손현영(요셉), 김지연(베드로), 권진순(아가다), 김동환(니콜라오),
서은지(율리안나), 박영식(루까), 한순택(아가다), 김주원(바로오), 손형영(요셉), 봉윤근(세례지요한),
허균(베드로), 박한규(요셉), 송비오, 최완희의 영혼과 세상을 떠난 후원 조상님들 영혼이 하느님 품안
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기도합니다.

 이숙여(소화데레사), 염서우(율리안나), 정미경(카타리나), 김경자(임마누엘라), 김소진(프란치스카),
황회환(체칠리아), 임홍자(세실리아), 김효성(안드레아), 김숙희(로사리아), 정찬우(테어도르), 허윤경,
이윤나(데레사), 조현재의 후원 회원님들 영육간의 건강과 성화은총을 청합니다.

 손민석(베드로), 홍만숙(모니카), 박숙자(베로니카), 윤흥기(요셉), 박종수(제노베파), 김성숙(마리아),
이영삼(요셉), 전정일(미카엘), 김범규(다니엘), 이철주(이나시오), 김경애(엘리사벳), 구본휴(토마스)
강수진(로사), 이채운(바오로), 원동빈(요엘), 박서윤의 치유은총과 가정성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솔리(소화데레사), 임한빌(미카엘), 류채은(크리스티나), 윤길숙(발레리아), 김숙빈(데레사), 목민아,
허나영(스텔라), 이한준(라파엘), 정경순(골롬바), 문유빈(데레사), 하재영(라파엘), 이채은(안젤라),
황찬영(안토니오), 정재욱, 홍준환의 입시, 취직, 사업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성지 소식란

1) 2025년 10월 후원금 내역(2025년 10월 1일 ~ 10월 31일)

• 자동이체 : 327명	6,853,760원	• 합 계 : 440명	8,656,760원
• C M S : 113명	1,803,000원	• 땅봉헌 : 14명	3,425,000원

2) 땅 한평 봉헌 운동 안내

2006년 성지 성역화를 시작하면서 6200평의 부지를 교구의 도움을 받아 구입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은인들의 도움으로 성전과 조경공사를 아름답게 마무리 하였으나 교구에 갚아야 하는
부채가 많이 남았습니다. 조금 부담되는 금액이지만 한분 두분 정성이 모아진다면 훗날 이곳 성인들
의 신앙적 열정이 후원자분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게 되리라 믿습니다. 정성을 봉헌해 주실 분은 후원
회계좌로 봉헌하여 주시고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미사와 기도중에 기억해 드리겠습니다. 평당 봉헌 금
액은 구입시 가격인 60만원입니다.

3) 성지 부채(땅) 현황(2025년 10월 31일 기준)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장기부채(땅) 잔액 : 2억 6359만원

4) 1년 동안 요당리성지에서 봉사해주신 교우님을 위한 <갈매꽃성지 순례> 안내

- 일자 : 11월 29일 토요일 9시 출발, 5시 도착.
- 신청 : 각분과장에게 신청 혹은 사무실 문의.

※ 봉사자 전체 성지순례로 인하여 당일 11월 29일 성지미사는 없습니다. 성지는 개방합니다.



공지사항

✿ CMS출금 이체 안내

기존에 지로입금으로 후원해 주신 후원자분들이 은행에 매번 가시는 번거로운 일을 성지 사무실에서 후원회원님의 신청계좌로 대신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과 해지가 편리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사무실(031-353-9725)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지 순례 안내

식사는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주문해 드립니다.(30명 이상 가능)

후원회 계좌 안내

신 협 : 03087-12-000663
농 협 : 207046-51-001515

우리은행 : 1006-901-241096
국민은행 : 468637-04-002844

● 예금주 : 재) 천주교 수원교구 - 요당리 성지

땅 봉헌 계좌 안내

신 협 : 03087-12-000726 ● 예금주 : 천주교 수원교구 요당리 성지

찾아 오시는 길

- ▶ 발안 IC에서 안중방향 고잔저수지 건너편
- ▶ 청북 IC에서 발안방향 고잔저수지 건너편
- ▶ 문의 사항 ☎ 사무실 : 031) 353-9725
F A X : 031) 353-9785



용지는 수원교구에서 진행하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봉헌” 캠페인에 동참하고자 친환경용지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절 --- 취 --- 선

요당리 성지 후원회 신청서

성명		세례명		전화번호	
주소					
교구		본당		월 봉헌액	
※ 신청서를 작성하신 분은 성지사무실로 보내주십시오					



요당리 성지

주소 _ (18635)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길 155
전화 _ 사무실 : 031) 353-9725, FAX : 031) 353-9785 · <http://www.yodangshrine.kr>